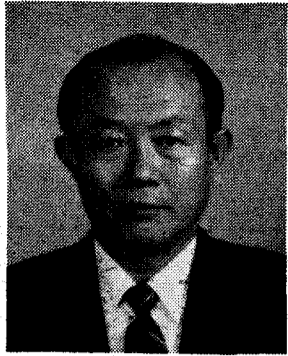


최근 한민국의 생명표 해설

특히 주요사인의 변천, 사망률추이 및 평균연명 등을 알아본다.



유동준
(경희의대 교수)

명 등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국가간 경제, 사회, 보건수준의 지표자료로 이용되며, 최근에는 보험료율의 산정, 인명보상비의 계산, 또는 각종 직장에서의 停年의 延長결정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어, 현대생활에서 생명지표로서 가장 소중한 통계자료라 하겠다.

■우리나라 生命表 沿革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주무부서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統計廳)에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1955~60년의 생명표를 1964년에 최초로 작성한 후 지금까지 9가지의 생명표를 이룩하였는데, 1990년에 만든 1983, 1985, 1987, 1989년 생명표를 거쳐 가

장 최근의 생명표인 1991년도 生命表가 드디어 새로이 完成되어 이번에 나온것이 다.

■1991年度 生命表分析 解説

I. 死亡率 様相 :

(1) 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출생직후에는 높으나 점차 감소하여 10~14세에서 男女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이후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망률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男女別 사망률을 보면, 남자의 사망률은 女子의 사망률보다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사망초과비(여자사망률에 대한 남자 사망률의 비율, Excess male mortality ratio)를 보면 :

0세에서는 男女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으나, 그후 차이가 커져 40~44세에서 2.83으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후, 점차 적어지고 있다

II. 年齡別 死亡率의 國際比較

연령별 사망률을 美國, 日本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상당히 높는데, 생활수준이 비슷한 대만에 비해서도 다소 높으나, 헝가리, 폴란드, 필리핀 등의

〈표 1〉 年齡別 死亡率 比較 (人口 千名當)

	男 子			女 子		
	91韓國 (A)	UN모델 ¹⁾ (B)	A/B	91韓國 (A)	UN모델 ²⁾ (B)	A/B
0歲	9.89	45.99	0.22	9.39	31.52	0.30
1~ 4	1.02	3.15	0.32	0.88	2.04	0.43
5~ 9	0.64	0.86	0.74	0.47	0.46	1.02
10~14	0.50	0.62	0.81	0.34	0.29	1.17
15~19	1.06	0.98	1.08	0.51	0.41	1.24
20~24	1.42	1.41	1.08	0.68	0.55	1.24
25~29	1.86	1.65	1.13	0.79	0.73	1.08
30~34	2.48	1.96	1.26	0.98	0.96	1.02
35~39	3.23	2.68	1.21	1.30	1.36	0.96
40~44	5.37	3.87	1.39	1.90	2.03	0.94
45~49	8.53	5.87	1.45	3.23	3.10	1.04
50~54	12.24	9.22	1.33	4.61	4.84	0.95
55~59	16.69	14.43	1.16	6.69	7.69	0.87
60~64	25.96	22.77	1.14	11.02	12.49	0.88
65~69	40.22	35.32	1.14	18.73	20.97	0.89
70~74	63.45	53.81	1.18	33.68	34.43	0.98
75~79	100.40	80.29	1.25	60.29	54.50	1.11

주 1) 期待壽命 67歲(韓國 5~40歲 未滿 年齡層의 年齡別 死亡率에 相應하는 期待壽命의 平均)에 相當하는 UN 一般 모델 生命表의 年齡別 死亡率

2) 期待壽命 74歲(韓國 5~40歲 未滿 年齡層의 年齡別 死亡率에 相應하는 期待壽命의 平均)에 相當하는 UN 一般 모델 生命表의 年齡別 死亡率

개발도상국 보다는(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男女別로 볼때 남자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으며, 헝가리, 폴란드 등에 비해서는 20세 미만 연령층에선 우리나라가 다소 높으나, 20세 이상 연령층에선 우리나라가 낮고, 필리핀, 브라질보다는 저연령층에서는 우리나라가 낮으나 고연령층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女子의 경우, 남자와는 달릴 대부분의 연령별 사망률이 선진국수준보다는 높고, 개발도상국보다는 대체로 낮은 사망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대체로 UN의 생명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표 1. 참조)

III. 우리나라 40代 男子死亡率의 特徵 :

인구학적으로 한 인구집단은 환경, 경제수준,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男女別, 연령별, 人種이나 民族등 여러가지 特性別로 일정한 死亡様相, 즉 사망률차이, 사망률증감 속도 등의 고유한 사망 "패턴"을 지니고 있음이 오랜 경험적 사실로 알려져 있다.

국제연합(U.N.)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였던 사망률을 토대로 하여, 1982년 이래 지역별 및 일반 모델(Model Pattern)의 생명표를 작성한바가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령별 사망률을 U.N.의 일반 Model 생명표(General Pattern)와 비교해 보면; 여자의 경우, 연령별 사망률은 영유아기(0~4세)연령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UN의 생명표와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 女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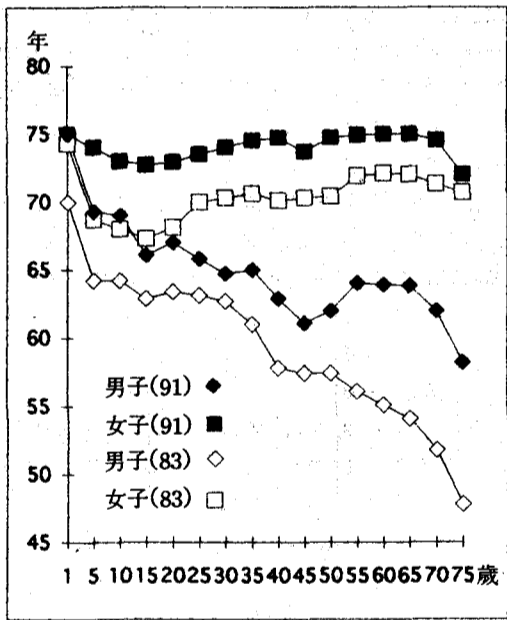
〈7면으로 계속〉

■生命表란 ?

생명표(Life table)란 인간의 壽命에 관한 통계표로서 어떤 인구가 각 연령에서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이다.

생명표는 男女別로 年齡別로 작성되어 각 연령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수 있는 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인구추계, 人口分析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는데, 특히 平均餘命(期待壽命), 영아사망률, 평균수

〈도표 1〉 우리나라 年齡別 死亡率과 UN 모델 生命表의 相應 期待壽命比較



당뇨성 신경장애

새로운 치료제로 입증된 비타메진

이런 증상일 경우가 당뇨성 신경장애입니다.

- 혈액중의 고혈당은 신경조직을 파괴하여
 - 팔다리의 무력감증, 저림, 근육통이 나타난다.
 -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 발기부전과 배뇨가 곤란하다.
- 이와같은 당뇨성신경장애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뇨로 손상된 신경조직이 살아납니다

대량의 비타민 B群은 인슐린의 생성 및 활성을 촉진하고 신경세포의 부활작용도 우수하여 최근 당뇨성 신경장애, 망막증, 신증, 기타소모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제로 그약효가 입증되었습니다.

- 손상된 신경조직을 조속히 재생시켜줍니다.
- 소염진통제가 아니면서 진통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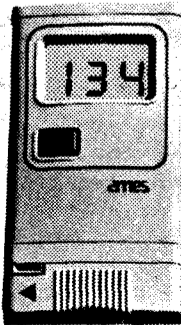
- 벤포티아민..... 69, 15mg
- 염산 피라독신..... 50mg
- 시아노코발라민..... 500 µg

당뇨성신경장애, 신경통, 기타소모성질환 치료제

비타메진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캡슐 22,000원

10만원대 혈당측정기

혈당측정기의 세계적 권위 미국의 에임스가 사용이 더욱 간편해진 글루코메타GX를 선보입니다.



고기능저가격의 글루코메타GX

1.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이 간편.
2. 광전사법에 의한 완벽한 측정.
3. 10회분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
4. 반영구적인 수명.
5. 휴대가 간편한 담배갑 크기.
6. 기능과 성능에서 비교될수 없는 가격 16만원.

글루코메타GX

비타메진과 글루코메타GX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100-60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8호 ☎(02)464-0861
비타메진 ☎(교)585, 글루코메타GX ☎(교)에임스실
지방: 대구영업소 752-5544, 대전영업소 253-9597, 9598, 광주영업소 223-6667-6668

<6면에서 계속>

는 다른나라 여자의 평균적인 연령별 사망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男子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저연령층에서는 UN의 모델 생명표보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낮으나, 그 이후 연령층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높는데, 연령이 많아질수록 차이가 점차 커져서 40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후, 50대부터는 그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남자의 사망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특히 4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하겠다(도표 1. 참조).

IV. 平均壽命 :

1991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1.57세로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즉 1950年代末의 52.39세, 1970년의 63.15세, 1983년의 67.94세에 비해 각각 19.18세, 8.42세, 2.63세가 높아진 것이

다. 이는 경제발전에서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발달 및 의료혜택의 확대, 출산력 감소와 모자보건향상, 그리고 영아사망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이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평균수명은 67.66세, 여자의 평균수명은 75.67세로, 여자의 평균수명이 8세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男女간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1985년에 8.41세를 고비로 하여 다소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日本의 남자 76.11세, 여자 82.11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남자가 8.45, 여자가 6.44세가 낮은 수준이다.

V. 年齡別 期待餘命(Life Expectancy) :

연령별 기대여명은 모든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연령층에서 남자의 기대여명 증가폭이 여자보다 커서 남녀간 기대여명의 차이가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여자의 사망률이 이미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 도달하여 기대여명의 큰 폭의 증가가 어려운 반면에,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앞으로 사망률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 즉 기대여명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가를 살펴보면, 1991년에 태어난 남아의 경우 67.66년을, 여자는 75.67년을; 30세의 경우, 남자는 39.93년을, 여자는 47.45년을; 60세의 경우, 남자는 15.48년을, 여자는 20.12년

정도를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VI. 特定年齡까지 살아남을 확률 :

1991년에 태어난 출생아중에서 4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生殘率)이 남자는 93.25%, 여자는 96.25%로 여자의 생존율이 약간 높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간의 생존율의 차이는 커져서 6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남자는 75.2%, 여자는 88.66%이고, 80세까지는 남자가 23.49%, 여자가 47.63%이다. 따라서 남·녀 각각 1만명이 출생했다고 했을때 80세까지 살아남을 숫자는 남자가 2,349명, 여자가 4,763명이 된다.

또한 연령이 40세인 남자가 8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25.19%, 여자가 49.48%로, 이는 40세의 남자는 4명

중 1명정도, 여자는 2명중 1명정도가 각각 80세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표 3. 참조).

■우리나라 主要死因의 死亡率推移

아울러, 최근의 우리나라 주요사망원인의 사망율을 분석하여 과거 10년간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 추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癌사망율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인데, 위암, 간암, 자궁암은 최근엔 정체내지 약간 감소 경향을 보이지만, 위암은 아직도 암사망율중 가장 높다. 폐암은 증가추세에서도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은 그다음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뇌졸중, 고혈압성 질환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 순환기계질환중에서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낮은 실정이다.

(3) 당뇨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과거 10년전(82년도)에 비해 약 3배의 증가를 보였다.

(4) 만성간장병(간경변포함)의 사망률은 90년 이후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수준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5) 30대미만 연령층의 가장 높은 死因은: 교통사고, 의사, 추락 등을 일컫는 不慮의事故"로 나타나, 젊은 층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우 많음이 보여주고 있듯이 교통사고 사망율은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91년부터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6) 만성전염성질환의 대표적 질병인 結核은 효과적인 결핵관리사업의수행, 항결핵화학요법의 성공적인 실시,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의료혜택의 확충 등으로 계속 더욱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이 보였다.

<끝>

**평균수명 30년새 19.18세 늘어
40代 남자 사망률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표 2> 연령별 기대여명추이(單位: 年)

年齡(歲)	男 子			女 子		
	1983	1989	1991	1983	1989	1991
0歲	63.84	66.73	67.66	72.24	74.88	75.67
1	63.86	66.53	67.33	72.36	74.75	75.38
5	60.37	62.85	63.60	68.92	71.07	71.64
10	55.71	58.09	58.80	64.24	66.26	66.80
15	50.92	53.25	53.94	59.44	61.40	61.91
20	46.28	48.52	49.21	54.73	56.57	57.06
25	41.72	43.89	44.54	50.06	51.79	52.25
30	37.18	39.32	39.93	45.36	47.01	47.45
35	32.70	34.81	35.40	40.70	42.24	42.67
40	28.36	30.35	30.94	36.09	37.56	37.93
45	24.34	26.16	26.71	31.61	32.94	33.27
50	20.54	22.26	22.76	27.25	28.47	28.77
55	16.97	18.57	19.04	23.06	24.12	24.38
60	13.72	15.07	15.48	19.02	19.93	20.12
65	10.86	11.94	12.99	15.23	15.96	16.12
70	8.40	9.16	9.48	11.82	12.33	12.46
75	6.38	6.85	7.11	8.87	9.20	9.29
80+	4.71	5.06	5.19	6.29	6.61	6.70

<표 3> 특정나이까지 생존할 확률(單位: %)

91年 年齡	男 子					女 子				
	40歲	50歲	60歲	70歲	80歲	40歲	50歲	60歲	70歲	80歲
0	93.25	86.99	75.27	54.02	23.49	96.25	93.81	88.66	76.40	47.63
1	94.18	87.85	76.02	54.55	23.72	97.15	94.69	89.49	77.12	48.07
5	94.56	88.21	76.33	54.77	23.82	97.49	95.03	89.81	77.39	48.24
10	94.87	88.50	76.57	54.95	23.89	97.72	95.25	90.02	77.57	48.36
15	95.10	88.72	76.76	55.09	23.95	97.89	95.41	90.17	77.70	48.44
20	95.61	89.19	77.17	55.38	24.08	98.14	95.66	90.40	77.90	48.56
25	96.29	89.82	77.72	55.77	24.25	98.48	95.98	90.71	78.17	48.73
30	97.19	90.66	78.45	56.30	24.48	98.87	96.37	91.07	78.48	48.92
35	98.40	91.79	79.42	57.00	24.78	99.35	96.84	91.52	78.86	49.16
40	100.00	93.29	80.72	57.92	25.19	100.00	97.47	92.12	79.38	49.48
45		95.83	82.91	59.50	25.87		98.40	93.00	80.13	49.96
50		100.00	86.53	62.09	27.00		100.00	94.51	81.44	50.77
55			91.99	66.01	28.70			96.71	83.33	51.95
60			100.00	71.76	31.20			100.00	86.17	53.72
65				81.73	35.53				91.05	56.76
70				100.00	43.48				100.00	62.34
75					59.87					73.80
80					100.00					100.00



일본제약시장을 1년만에 석권한 성인병예방 치료제



메바로친은 혈액의 흐름을 막아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지방)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신제품입니다.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

동맥경화는 동맥내벽에 생겨난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이 침착되어 소위 "플라크"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동맥내벽을 좁게 만들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자각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소리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와 합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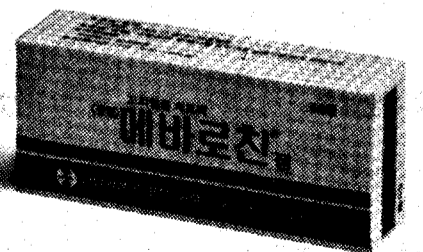
● 뇌졸중(중풍)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뇌동맥이 좁아져

혈액순환이 줄고 뇌에 필요한 충분한 혈액과 산소공급이 방해를 받아 생겨나는 질환으로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 심장마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액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로 호흡근관에 의한 통증및 쇼크사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 협심증
심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고 쪼는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의 새로운 도전 "메바로친"

- 메바로친은 89년 일본에서 개발된 최신향약으로 월 70억엔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필요이상으로 인체내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배설시킵니다.
-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장에서만 작용하여 타장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메바로친

표준소매가격 : 55,000원(50T)

본제품에 대한 자세한문의를 본사 PM4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TEL:(02)464-0861 교환584